

#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세언\* · 황찬규\*\* · 권두순\*\*\*

## Impact of Self-Determination Characteristic of Small Business Start-U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Se Eon Park\* · Chan Gyu Hwang\*\* · Do Soon Kwon\*\*\*

### Abstract

Micro small business start-ups are receiving financial and marketing support from government or public authority, but business closure rate is very high and it causes a high burden to households and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characteristic of small business start-up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The man's intrinsic motiv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s.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ncludes perceived 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relation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presented a research model for explain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s, and collected 260 survey responses from the small business start-ups.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PLS analysis is performed with valid 246 questionnaires. By PLS technique, the measure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variables are tested and the path analysis is conducted to do the hypothesis test. Path analysis shows that perceived autonom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On the other hand, perceived compet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Perceived relationship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learning orientation. It is found that the parameters of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a policy and strategy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 start-up are presented.

Keywords : Small Business Start-Up, Learning Orientation, Innovation Ability, Entrepreneurial Inten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논문접수일 : 2015년 05월 25일 1차 논문수정일 : 2015년 07월 02일 2차 논문수정일 : 2015년 07월 24일 논문게재확정일 : 2015년 07월 26일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 e-mail : 12345psm@naver.com

\*\* 교신저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 e-mail : hwang@svu.ac.kr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 e-mail : do20kg@naver.com

## 1. 서 론

거시적으로는 1997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 2015년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들의 양산, 직장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자리의 부재, 재취업 곤란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규모는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정책적 요인, 인구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망업종의 창업 유도, 과밀업종 진입 최소화, 경영역량 강화, 업종전환 등의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기획재정부, 2012].

소상공인은 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규모의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로자 수보다도 소규모 기업의 특성에 기인하여 경영자나 근로자 모두 단일 기능보다는 경영관리, 생산, 기술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채갑석, 이원준, 2013].

현재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상당히 높으며,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고용기회를 얻지 못하는 미숙련, 저학력 노동자나 실직 노동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안전망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13]. 그러나 소상공인의 5년(2009~2013)간 누적 창폐업 실태를 보면 개인사업자의 신규창업자는 4,828천명, 폐업자는 4,075천 명으로 창업자 대비 폐업자의 비율은 84.4%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은 87.1%, 2013년은 86.9%로 높아지는 실정이다[국세청, 2014].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자들과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돕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대표적 공공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 창업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멘토링, 마케팅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지원과 경영역량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침체 지속으로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 과당 경쟁 심화, 금융권의 금융소의 현상 확대,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의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이 낮아서' 69.3%, '수요가 없어서' 38.2%,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낮아서' 28.1%, '건강악화·가정불화 등 개인사정' 14.8%, '적성에 맞지 않아서' 9.8%, '업종전환' 9.4%로 나타났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이는 낮은 진입장벽 및 정책대상 광범위 등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과잉화, 수익성 저하 등으로 집약되는 자영업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창업동기를 보면 최초 창업 시 동기는 '경제적 동기'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환경 동기' 26.9%, '경제적 환경 동기' 25.8%, '자아실현 동기' 7.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 창업 동기의 경우, '생활환경 동기'가 40.6%로 조사되어 최초 창업동기와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동기' 27.4%, '경제적 환경 동기' 18.2%, '자아실현 동기' 7.5%순으로 나타났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4]. 여기서 '경제적 동기'는 창업이외의 진로보다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한 창업을, '생활환경 동기'는 다른 대안이 없어 생계를 목적으로 한 창업을 '경제적 환경 동기'는 취업난 및 직장 전망이 불투명해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의 창업을 의미한다. 이처럼 폐업이 늘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드라이브 정책에 편승한 외부적 환경과 생계유지를 위해 외재적 동기에 의한 비자발적 창업, 시장 경제의 어려움, 창업자 자신의 역량은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이 원인으로 작용했다[중소기업청, 2013]. 따라서 창업자의 핵심역량을 키우고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신중하고도 준비된 창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창업을 결정하게 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개인적 특성이 있다. Krueger et al. [2000]의 연구에서 성공적인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창업동기가 중요하다. 창업동기는 창업 경험, 관련 산업경험, 경영자로서의 경험, 연령, 교육수준에 있어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떤 동기에 의해 창업가적 행동이 유발되는지 등 창업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윤남수, 2012]. 그러나 소상공인들 중에는 자신의 역량보다는 정부의 자금지원과 정책에 기대어 창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창업을 하는 비자발적 생계형 창업이 무분별하게 이어지게 된다. 이는 외재적 동기에 의한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창업으로써, 대다수가 경영적 위험에 처해있다. 초기 창업을 계획하는 창업자의 경영애로를 감소시키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가 전제되어야 한다[유봉호, 2013]. 따라서 자기결정성 이론을 토대로 자기결정적인 사람일수록 내재적 동기에 더 영향을 받아 자발적인 창업의지를 가지게 되고 창업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창업자의 인구통계학적 개인특성에 관한 연구[민향옥, 김동주, 2013; 윤방섭, 2004;

이지우, 2000]와 창업교육에 관한 연구[박재환 외, 2011; 최명길, 박은주, 2012; 최세철, 권용주, 2014] 그리고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김영중 외, 2014; 오영미, 박성환, 2014; 윤남수, 2012]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셀프리더십 및 개인이 처한 상황에 관한 연구[반성식 외, 2013; 유봉호, 2014]가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를 기반으로 한 소상공인의 핵심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학습지향성 및 혁신역량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차별점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창업하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찰하고,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의지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내재적 동기를 연구하고 경영학적 함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 이상의 조직역량 관점에서 다루어진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을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창업의지와 관련된 논의를 시도해 본다는 것이다. 넷째, 자기결정성과 창업의지 간에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의 매개역할을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인 자기결정성 이론인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관계성이 학습지향성,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이 소상공인 및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영향 요인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창업실태, 자기결정성 이론, 학습지

향성, 혁신역량 그리고 창업의지를 정리하고, 기존 소상공인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 3장에서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하고, 제 4장에서는 변수 정의와 연구대상 및 분석단위를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가설검증 및 결과분석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연구결과 및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소상공인과 창업실태

소상공인(Small Business Start-Up)이란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고 기타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법제처 제11846호, 2013; 최세철, 권용주, 2014]. 소상공인은 그 특성상, 생계형 창업이 그 기반의 중심이 되며 대부분 소점포 소규모의 자금으로 창업을 시작하여 매우 영세한 조건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가족을 말한다[우대일, 이상윤, 2011]. 소상공인과 자영업주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소상공인은 1~4명 또는 1~9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주가 운영하는 업체라 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소상공인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이유태, 2012].

소상공인은 소규모와 민첩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개발과 상품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생산한 제품을 최종적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망을 형성하는 자라고 하였다[이남주 외, 2013]. 소상공인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능성이 높으며, 중견 및 대기업과의 하청분업관계에서 부분품을 생산 조립하거나, 생산품의 도소매 등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

성하고 있고 우리나라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덕훈 외, 2013].

소상공인의 특징은 기술과 정보, 경영능력의 부족과 자금이 취약한 영세한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다. 첫째, 가족경영에 의한 생계형 창업이 많고 정보와 마케팅의 부족 등으로 생산성과 혁신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지정훈, 김혜정, 2010]. 둘째, 소상공인들의 업종은 폭 넓게 분포하고 있고 매년 새로운 업종의 등장과 치열한 경쟁으로 창업과 휴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빈봉식, 박정기, 2002]. 셋째, 사업 운영자금과 가계 생활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생활자금이 그대로 유입되어 자금관리의 개념이 낮고 사업의 손익관리가 안되고 있어 재무관리 및 경영개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이덕훈 외, 2013].

소상공인의 실태를 보면 2012년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로 나타났으며, 1년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종사자수 4인 이하 기준으로 2012년 신생기업은 739천개(13.7%) 소멸기업은 722천개(13.4%)로 나타났다[통계청, 2014]. 또한 자영업자의 60.9%가 6개월 미만의 창업 준비 기간을 거쳐 생계유지를 위해서 82.6%가 창업을 하였으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판로가 26.8%, 자금부족 22%, 상품·서비스가 19.4%, 입지가 11.8%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 2013].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연구에 대해 첫째, 외재적 동기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창업자의 내재적 동기에 의한 창업의지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변하는 외부환경과 시장변화에 필요한 핵심역량인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에 대해 경영학적 접근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창업 5년 생존율이 30.9%인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91.6%는

향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중소기업청, 2013]. 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루어지려면 내재적 동기에 의한 자발적 창업의지와 꾸준히 배우고자 하는 열정, 시장의 변화에 호응하는 혁신 역량을 키워야 지속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 2.2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자기결정성이란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결정할 때 외부적 압력이나 보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유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조진현, 임미란, 2014]. 또한 자기결정성을 근원적 본질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자유의지에 의해 외적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이정원 외, 2010]. 자기결정성 이론은 개인의 성격발달과 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을 구분하기 위한 내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론이면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가 유발되어 창의적 행동, 긍정적인 정서적 반응, 자존감, 유연한 인지적 처리, 삶의 만족, 수행, 그리고 끈기 등이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김은영, 2012]. 내재적 동기가 높은 수준에 있을 경우 외재적 동기일지라도 정보적이고 건설적이며, 과제를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외재적 동기는 창의성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통제적인 외재적 동기는 여전히 창의성을 방해한다고 보았다[Amabile, 1996]. 하지만 Deci and Ryan[1985]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를 구분하지 않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내면화되어 자기결정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고수일, 한주희[2009]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의 이원화된 구조에 동일시 동기 및 규범적 동기, 무동기가 부가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자기결정 연속선에 따른 동기유형을 아래의 <표 1>로 설명할 수 있다.

<표 1> 동기유형[Ryan and Deci, 2000]

행동 (Behavior)	비자기결정성 (Nonself-Determined)					자기결정적 (Self-Determined)
동기 (Motivation)	무동기 (Amotivation)	외재적 동기 (Ex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조절양식 (Regulatory Styles)	무조절 (Non-Regulation)	External Regulation (외적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 (투입된 조절)	Identified Regulation (동일시된 조절)	Integrated Regulation (통합된 조절)	내적조절 (Intrinsic Regulation)
인지된 인과 소재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개인의 (Impersonal)	외적 (External)	다소 외적 (Somewhat External)	다소 내적 (Somewhat Internal)	내적 (Internal)	내적 (Internal)
관련 조절 과정 (Relevant Regulatory Processes)	무의도 (Nonintentional) 무가치 (Nonvaluing) 무능력 (Incompetence) 통제의 결여 (Lack of Control)	컴플라이언스 (Compliance) 외적인 보상 및 처벌 (External Rewards and Punishments)	자기-조절 (Self-control) 자아 관여도 (Ego-Involvement) 내적 보상 및 처벌 (Internal Rewards and Punishments)	개인의 중요성 (Personal Importance) 및 가치의식 (Conscious Valuing)	일치성과 (Congruence) 자각 (Awareness) 자기와의 통합 (Synthesis with Self)	흥미 (Interest) 즐거움 (Enjoyment) 내재적 만족감 (Inherent Satisfaction)

세부적으로 동기유형들을 살펴보면 첫째, 무동기는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둘째, 외적 조절은 외재적 동기 중에서 자기결정성이 없는 전형적인 외적 제약에 의하여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투입된 조절은 행동에 대한 원인을 이제 막 내면화시키기 시작하는 단계로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외부의 압력에 기초한 것이므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동일시된 조절은 개인이 행동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내면화 시키지는 않아도 그 가치를 인정하여 수용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그 행동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동을 하나 그것 자체에 대한 기쁨이나 자기만족 보다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내재화된 것은 아니다. 다섯째, 통합된 조절이란 외재적 동기의 가장 자율적이며 완전하게 내재화된 형태이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완전히 동화된 선택된 조절에 의해 행위를 하지만 여전히 행위 자체의 고유한 속성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조절이 내면화 되면 개인은 자신의 가치나 정체성의 다른 측면들과 조화를 이루으로써 그러한 행동의 원인을 완전히 수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동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삶에 대한 흥미, 즐거움, 내재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를 의미한다[Ryan and Deci, 2000].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변수로는 개인의 본질적인 심리욕구인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이 있으며, 이들 변수들은 개인의 행복감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즉,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변수들은 자기결정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의 본원적인 감정이라 할 수 있다[Ryan and

Deci, 2000]. 자율성이란 자신이 스스로가 행하는 행동에 대한 주체이자 조절자라는 신념을 의미한다[서문식, 2014].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관심분야와 생각, 그리고 실생활 문제 및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능성이란 미션을 수행하고 목표에 대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권두순 외, 2010], 따라서 유능성은 동일한 개념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행동을 실행하여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관계성은 모든 현상 속에서 나 자신과 상대방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그룹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Standage et al., 2003].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발전시키려는 성향으로 정의한다[양윤직, 유종숙, 2014]. 관계성은 타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관계성 욕구가 만족될수록 내재적 동기 수준이 높아지고 협동학습 참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김은주, 도승이, 2009]. 따라서 관계성은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연결,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3 학습지향성(Learning Orientation)

학습은 오늘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 받고 있는 현대조직에 있어, 생존과 성장에 핵심적인 조직의 능동적, 예방적 변화능력으로 간주된다[Senge, 1990; Dodgson, 1993; Sinkula et al., 1997]. 이러한 학습지향성의 개념은 조직학습과 학습조직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Sinkula et al. [1997]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Sinkula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이란 조직의 상용

이론(theory-in-use), 정신모형(mental model), 지배논리(dominant logic) 등과 같은 고유의 조직 성향에 학습가치를 부여하는 조직의 가치체계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지향성은 조직학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요가치 특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최석봉, 2011]. Slater et al.[1995]의 연구에서는 조직이 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학습과는 달리 조직문화와 조직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Calantone et al.[2002]의 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은 경쟁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하는 조직 전반에 걸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정대용, 박권홍[2010]의 연구에서는 학습지향성을 지식창출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활동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문화로 해석하면서, 시장지향성과 혁신성에 영향을 미쳐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과 역량을 개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학습지향성은 조직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학습 활성화를 통하여 조직성과 및 재무적, 기술적 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과업수행에 흥미와 전문지식 습득을 가능하게 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과성과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최석봉, 2011]. 학습지향성은 조직의 학습적 능력으로써 학습몰입, 비전공유, 개방성이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개념이다[Calantone et al., 2002; Senge, 1990; Day, 1994].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조직원들이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기업목표와 시장정보를 잘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화와 트렌드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였다[여은아, 2009]. 학습지향적인 조직은 개방적인 사고로 시장정보를 잘 파악

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 학습지향성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원의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학습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신지식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유봉호, 2011].

학습지향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학습과정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목표지향성 이론에서 제시된 변인이며[Farr et al., 1993], 학습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기업조직에서 개인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개인의 내재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Sujan et al., 1994]. Bontis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개인과 조직 수준 간 학습의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조직의 학습가치가 개인의 생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일치(misalignment) 부분을 말하고 있으며, Wong[2002]의 연구에서는 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이 개인들 간의 차이를 해소하는 집단 내 상호조정 기능으로서 작용하나 개인들이 타인과의 완벽한 의견일치를 이룰 필요는 없으며, 자신만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이 개인 간의 인식차이를 최소화하고 학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학습개발 행동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한다[Baker and Sinkula, 1999; 여은아, 2009]. 또한 경영자의 가치가 많이 개입된 조직 학습지향성이 개인 학습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술적 환경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개인 학습지향성과 조직 학습지향성 모두 높게 인식하거나 일치될수록 높은 조직성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김강호, 2008; Coleman and Keep, 2001; Gibbons, 2002; Papanoidamis, 2005; Kelliher and Henderson, 2006]. 학습지향적인 기업은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자원과 지

식을 가지고 있어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이야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Dickson, 1996]. 중소기업은 기업의 자본력이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업무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으나 회사의 목표와 비전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종업원들에게 더 깊이 인식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성이 강하며 외부환경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Carland et al., 1984; 이일한 외, 2012].

#### 2.4 혁신역량(Innovation Ability)

혁신의 개념을 Van de Ven[1986]의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험하는 행위이며, Scott and Bruce[1994]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획득하고, 그것을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에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했다. 박지호[2011]의 연구에서는 혁신을 시스템, 정책, 프로그램, 장치,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막론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태도를 채용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채용하는 조직에게 있어 새로운 것으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역량의 개념을 Boyatzis[1982]의 연구에서는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탁월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박천오, 김상묵[2004]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충분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혹은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고재성 외[2010]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고 했다. 혁신과 역량의 개념을 통합한 개념을 알아보면, Burns and Stalker[1961]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세스, 제품 등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혁신 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 Lawson and Samson[2001]의 연구에서는 혁신역량을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혁신역량은 기존의 기업 활동과 새로운 혁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 김귀원[2014]의 연구에서는 혁신역량에 대한 구성 개념을 조정과 통합을 위한 행동역량,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역량, 그리고 이러한 모든 역량을 상호·순환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더십 역량의 합이라고 하였다.

기업의 혁신역량은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으로 구분하여 볼 수가 있는데, 기술혁신역량을 임채운[2010]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R&D 투입과 특허 성과를 통한 매출성장 등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이루어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기술혁신역량이 높다는 것은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물 대비 기술혁신 성과 혹은 기술혁신 산출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조직내·외부의 자원과 프로세스를 융합하여 새로운 자원과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능력으로써 동태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선양, 2008]. 한편 경영혁신역량을 나옥규 외[2010]의 연구에서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술과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반의 정보시스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높은 속도, 효율성, 품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 관리 등 내부 프로세스를 새롭게 차별화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조직의 변화,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보화시대의 기업환경에서 경쟁우위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박해근, 2008].



따라서 기업가의 의식구조 개선은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아이템 적용 및 경쟁우위 확보, 창업가정신 함양과 위험환경 대처능력을 갖추므로써 미래 불확실성 극복과 창업성공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

## 2.5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은 창업가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Bird, 1988; Katz and Gartner, 1988]. 창업은 하나의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써 창업가, 소유경영자, 조직설립, 혁신과 독특성, 가치창조, 이익창출 여부, 기업의 성장 등 8가지 측면을 연구의 주제로 제시하였다[Gartner et al., 1992]. 창업활동은 초기에는 개인 또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업에 관한 연구는 경제, 경영, 사회심리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Krueger et al., 2000; 민향옥, 김동주, 2013]. 행동의지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Ajzen과 Fishbein의 의도적 행동 모델을 통하여 창업의지와 창업행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 의지는 미래 목표행동에 대한 진념을 나타내며, 지각된 행동 통제력, 주관적 규범, 행동의지 등은 사람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로 간주된다[Ajzen, 1982; Ajzen and Fishbein, 1980; Krueger et al., 2000]. 창업의지는 잠재적인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창업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다[이지우, 2000]. 창업의지는 창업의도를 나타내는 태도를 말하며, 창업과정의 첫 단계로서 자신의 태도나 경험을 창업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창업의지는 신생 기업의 초기 특성

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Bird, 1988; 윤방섭, 2004]. Basu and Virick[2008]의 연구에서는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선행변수이다. 특히 의도는 행위가 관찰하기 어렵거나,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수치를 포함하는 경우에 행동대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창업행동을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으며, 창업의지는 창업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과 취업할 가능성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서 유발된다[Kolvereid and Moen, 1997]. 따라서 창업의지가 높다는 것은 취업보다는 창업에 더 호의적이라는 의미이다[김미숙, 김영국, 2012]. Bird[1988]의 연구에서는 창업의지는 단순히 개인적 성향과 외부의 환경요인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얻어진 다수의 경험으로 쌓여진 다양한 요인과의 복합 작용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이완기 외, 2013]. 창업은 계획된 행동이므로 창업의지에 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Shapero[1975]의 연구에서는 의지란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 창업에 대한 개인이 끌리는 정도로 측정되는 지각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및 개인이 창업에 대해 느끼는 가능성의 정도인 지각된 적성(perceived feasibility)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았다. Shapero의 ‘창업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 모델 또한 개인의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을 이해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Shapero의 견해는 지각이 창업과정에서 어떻게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즉, 실직이나 이민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생애이벤트(life event)는 개인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체 안으로서 개인은 창업에 대해 지각하게 된다. 이는 창업의지에 영

향을 주어 결국에는 창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창업의지는 창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는 기반으로 작용하며,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시사, 강성일, 2007; 박재환 외, 2011]. 이와 같은 견해는 지각이 창업 행위를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즉 개인의 선택과정에서 대안으로 창업을 지각하게 되고, 지각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어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최명길, 박은주, 2012]. 창업의지는 잠재적 창업가가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ant, 1996]. 창업의지는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Veciana et al., 2005].

### 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 3.1 연구 모형의 설정

본 연구는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 요인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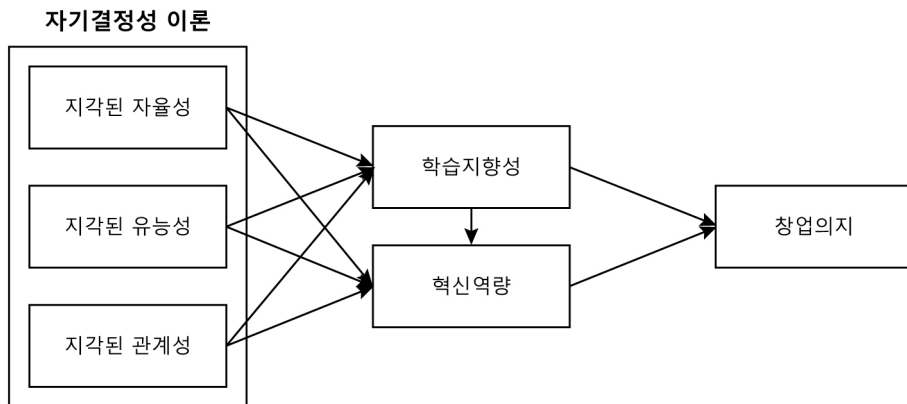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모형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내재적 동기 강화를 강조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주요 변수를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의지 영향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 학습지향성,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인 자기결정성 이론의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관계성과 학습지향성,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적용한 연구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 3.2 연구가설의 설정

##### 3.2.1 소상공인 자기결정성 특성과 학습지향성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 영향요인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영향요인들이 학습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Ryan and Deci[2000]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자



<그림 1> 연구모형

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관계성은 개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모두 증가시키는 변인이라고 언급하였다. 첫째, 자율성(Autonomy)이란 자신의 자유의지의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고도일[2011]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에 대한 자율성의 효과는 학습목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며, 자율성과 성과-보상 연계성은 성과접근 목표를 매개로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기업 조직원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될 때 업무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유능성(Competence)은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 행동을 실행하여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김정환[2011]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교수능력, 자기효능감, 실제지능, 성취목표, 지향성 및 학습전략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정행동에 대해 성과가 나타나면 나에게 오는 자신감으로 인해 어떤 학습을 받아도 의욕적이면서 열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관계성(Relatedness)은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연결,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김명숙, 김정인[2008]의 연구에서는 협동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공동체의식, 성취목표 지향성 및 공유된 목표 간의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집단 협동학습상황에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정리함으로써, 공동체적 의식이 생겨나게 되면, 성취목표와 학습지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 영향요인과 학습지향성과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소상공인의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소상공인의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소상공인의 지각된 관계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2 소상공인 자기결정성 특성과 혁신역량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 영향요인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 영향요인들이 혁신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성과 혁신역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통해 혁신적인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김종우, 이지우[2012]의 연구에서는 과업특성과 혁신성과에 관한 연구에서 절차공정성과 과업자율성은 혁신행동에, 혁신행동은 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직원들의 공정한 절차와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분위기는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김해룡, 김쌍언[2011]의 연구에서는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의 하위 전략들 가운데 행동지향적 전략과 자연적 보상 전략은 직무자율성과 혁신행동 간에 부분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리더십을 가지고 직무에 대해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실행한다면 혁신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지우 외[2003]의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업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조하거나 도입,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혁신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유능성과 혁신역량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강영순, 김정훈[2013]의 연구에서는 코칭 리더십과 기본심리욕구에 관한 연구에서 유능성 욕구는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본심리와 남들과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적인 행동을 일으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할 수라 할 수 있다.

셋째, 관계성과 혁신역량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이곡지, 추교완[2009]의 연구에서는 관계지향성의 요소 중 결속력, 의사소통, 가치공유, 감정이입이 혁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일수록 무언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어떤 업무나 창업활동에 있어서 혁신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 영향요인과 혁신역량과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 소상공인의 지각된 자율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소상공인의 지각된 유능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소상공인의 지각된 관계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3 학습지향성, 혁신역량 그리고 소상공인 창업의지의 관계

학습지향성은 지식창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학습에 대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혁신역량

은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혁신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미래에 스스로 창업하려는 의도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유정석[2012]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조직혁신을 위한 연구에서 학습지향성 및 과업자율성이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태권도에서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 업무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며, 관리적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과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대용, 박권홍[2010]의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학습지향성과 기업성공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지향성이 시장지향성,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성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배워야 할 콘텐츠의 내용을 기업에 반영하여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김영중 외[201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의 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2006]의 대학생의 창업자신감에 관한 연구에서 기업가특성 중 혁신추구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수[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관은 학습지향성에, 학습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창업의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인인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은 소상공인의 창업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 소상공인들의 학습지향성, 혁신역량 요인과 창업의지와 관련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7 : 소상공인의 학습지향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소상공인의 학습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 소상공인의 혁신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독립변수인 소상공인의 영향요인은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관계성 요인으로 자기결정성을 정의하였다. 매개변수는 학습지향성, 혁신역량 그리고 종속변수는 소상공인의 창업의지이다.

## 4. 연구방법

### 4.1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도출된 소상공인의 자기결정성 특성이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선행연구들의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연구문항을 구성하였다. 아래의 <표 2>

### 4.2 설문 설계(측정항목과 척도)

#### 4.2.1 지각된 자율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율성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고 느낀다, 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다고 느낀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선행연구

변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
독립 변수	자기결정성		
	지각된 자율성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Ryan and Deci[2000] 이명희, 김아영[2008] 김주환 외[2006] 권두순 외[2010]
	지각된 유능성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 행동을 실행하여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Ryan and Deci[2000] 이명희, 김아영[2008] 김주환 외[2006] 권두순 외[2010]
	지각된 관계성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연결,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Ryan and Deci[2000] 이명희, 김아영[2008] 김주환 외[2006] 권두순 외[2010]
매개 변수	학습지향성	지식창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학습에 대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Slater et al.[1995] Calantone et al.[2002] 정대용, 박권홍[2010]
	혁신역량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혁신능력이라고 정의한다.	Yam et al.[2004] 서리빈[2011] 장지호 외[2006]
종속 변수	창업의지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미래에 스스로 창업하려는 의도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Crant[1996] 이지우[2000] 박지유[2013] 박시사 외[2007]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총 6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명희, 김아영[2008]의 연구와 권두순 외[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였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2.2 지각된 유능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다고 느끼고 특정 행동을 실행하여 성과를 냈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는 총 6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명희, 김아영[2008]의 연구와 권두순 외[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였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2.3 지각된 관계성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신이 사람들 사이의 연계 및 연결,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내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는 총 6개 측정항

목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명희, 김아영[2008]의 연구와 권두순 외[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였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2.4 학습지향성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지식창출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내재화된 학습에 대한 성향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나는 회사의 학습 능력을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습을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잘 전달한다, 나는 업무 중 일어난 실수를 새로운 학습기회로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나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업무환경 또는 업무절차 등에 활용한다, 나는 직원이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에 적용해 보도록 장려한다, 나와 직원은 업무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총 7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정대용, 박권홍[2010]이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였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2.5 혁신역량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경쟁사와 비교하여 더 나은 가치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의 혁신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자원배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전략 계획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총 7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서리빈[2011]과 장지호 외[2006]가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였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2.6 창업의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미래에 스스로 창업하려는 의도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이 변수의 측정항목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내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는 총 5개 측정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측정항목의 참고문헌은 이지우[2000]와 박지유[2013] 그리고 박시사 외[2007]가 개발한 측정항목을 인용하여 재 수정하였다. 그리고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4.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소상공인을 선정한 이유는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 목적에 맞는 표본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신용보증기관의 4개 지역본부에 보증자금을 상담하기

위해 방문한 소상공인들에게 설문을 배포, 회수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2월 2일부터 17일까지 16일간 실시되었다. 이 기간에 총 26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14부를 제외한 246부의 설문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응답의 단순화를 위해 모든 측정항목에 단일 균형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설문은 익명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앞 절의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제시된 것처럼 대부분 선행연구를 통해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 항목만을 이용하였다. 또한 설문지 문항에 대한 국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공무원과 기타 관련 사람들의 내용 검토, 설문지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성개념의 내용 타당성(Face Validity) 및 가독성(Readability)을 확보하였다.

### 5. 가설검증 및 분석결과

#### 5.1 표본의 기술적 특성

<표 3>은 자료 분석에 사용된 총 246개 표본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사회경험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을 보여준다. 표본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152명(61.8%), 여자가 94명(38.2%)이며, 연령 분포는 30~39세가 94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61명(24.8%)로 전체 표본의 63%가 30~4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졸이 116명(47.2%), 전문대졸 56명(22.8%), 대학원 이상이 13명(5.3%)으로 전체 표본의 75.3%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분포는 기혼이 147명(59.8%), 미혼이 99명(40.2%)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경험 분포는 15년 이상이 75명(30.5%)으로 가장 많았고, 5년~10년 미만이 54명(22%), 10년~15년 미만이 47명(19.1%)으로 조사되었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항목	빈도 (N = 246)	비율 (%)
성 별	남 성	152	61.8
	여 성	94	38.2
연 령	20~29세	34	13.8
	30~39세	94	38.2
	40~49세	61	24.8
	50~59세	48	19.5
	60세 이상	9	3.7
학 력	중졸 이하	2	0.8
	고졸	59	24.0
	전문대졸	56	22.8
	대졸	116	47.2
	대학원 이상	13	5.3
결 혼	미혼	99	40.2
	기혼	147	59.8
사회경험	3년 미만	47	19.1
	5년 미만	23	9.3
	10년 미만	54	22.0
	15년 미만	47	19.1
	15년 이상	75	30.5

〈표 4〉는 연령에 따라 학력의 분포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이다. 연령에 따라 학력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 연령대별 대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40대는 대졸, 전문대졸, 고졸의 순으로, 50대는 대졸, 고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는 결혼여부에 따라 연령의 분포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이다. 결혼여부에 따라 연령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30대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은 40대에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 30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연령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이다. 연령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대는 3년 미만에서, 30대는 5년~15년 미만에서, 40대~60대는 15년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과 학력에 대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연령	학력	빈도(학력%)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20~29세		0	7(20.6)	10(29.4)	16(47.1)	1(2.9)	74.141 (.000)
30~39세		0	22(23.4)	26(27.7)	44(46.8)	2(2.1)	
40~49세		0	11(18.0)	14(23.0)	33(54.1)	3(4.9)	
50~59세		0	18(37.5)	5(10.4)	20(41.7)	5(10.4)	
60세 이상		2(22.2)	1(11.1)	1(11.1)	3(33.3)	2(22.2)	
전체		2(.8)	59(24.0)	56(22.8)	116(47.2)	13(5.3)	

〈표 5〉 결혼과 연령에 대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결혼	연령	빈도(연령%)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미혼		34(13.8)	54(57.4)	10(16.4)	1(2.1)	0(0)	111.609 (.000)
기혼		0(0)	40(42.6)	51(83.6)	47(97.9)	9(100)	
전체		34(13.8)	94(38.2)	61(24.8)	48(19.5)	9(3.7)	



〈표 6〉 연령과 사회경험에 대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연령 \ 사회경험	빈도(사회경험%)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20~29세	26(76.6)	6(17.6)	1(2.9)	0(0)	1(2.9)	34(100)	178.876 (.000)
30~39세	23(13.8)	15(16.0)	34(36.2)	25(26.6)	7(7.4)	94(100)	
40~49세	6(9.8)	1(1.6)	14(23.0)	15(24.6)	25(41.0)	61(100)	
50~59세	2(4.2)	1(2.1)	4(8.3)	7(14.6)	34(70.8)	48(100)	
60세 이상	0(0)	0(0)	1(11.1)	0(0)	8(88.9)	9(100)	
전체	39(19.1)	23(9.3)	54(22.0)	47(19.1)	75(30.5)	246(100)	

〈표 7〉 결혼과 사회경험에 대한 교차표와 카이제곱 검정결과

연령 \ 사회경험	빈도(사회경험%)						카이제곱 통계량 (유의확률)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미혼	39(39.3)	16(16.2)	22(22.2)	15(15.2)	7(7.1)	99(100)	75.330 (.000)
기혼	8(5.3)	7(4.8)	32(21.8)	32(21.8)	68(46.3)	147(100)	
전체	47(19.1)	23(9.3)	54(22.0)	47(19.1)	75(30.5)	246(100)	

〈표 7〉은 결혼여부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이다. 결혼여부에 따라 사회경험의 분포가 유의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혼은 3년 미만에서 가장 높고, 10년 미만, 5년 미만의 순으로, 기혼은 15년 이상에서 가장 높고 15년 미만, 10년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학습지향성, 혁신역량,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중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능성의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0.1이 높고,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령에서는 60대가 유능성이 가장 높고, 40대, 20대, 30대, 50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표 8〉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능성 차이분석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F통계량 (유의확률)
성별	남자	152	3.78	.554	4.931 (.027*)
	여자	94	3.68	.745	
연령	20~29세	34	3.78	.681	3.849 (.005**)
	30~39세	94	3.69	.516	
	40~49세	61	3.89	.658	
	50~59세	48	3.51	.690	
	60세 이상	9	4.16	.726	

\*p < .05, \*\*p < .01, \*\*\*p < .001.

## 5.2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확증적 요인 분석 도구인 PLS Graph version 3.0을 사용하였다. PLS는 구조모형과 측정모형을 함께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LISREL과 비슷하나, LISREL과 비교하여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LISREL은 모형의 적합도, 즉 카이제곱을

최대화하는 분석방법인데 비해 PLS는 상관계수( $R^2$ )를 최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LISREL은 관측된 공분산 행렬에 가장 근접한 공분산 행렬과 상관되는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 파라미터 평가절차를 이용하는 반면, PLS는 내생변수(Endogenous Construct)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PLS를 이용한 통계분석에서는 연구모형 전체의 적합성을 측정하기보다는 원인-예측(Causal-Prediction) 분석을 할 경우나 이론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Howel and Higgins, 1990]. 또한, PLS는 컴포넌트(Component) 기반 접근방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표본 크기와 잔차 분포(Residual Distribution)에 대한 요구 사항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는 기법이기도 하다[Chin, 1998a]. 둘째, LISREL은 견고한 이론적 배경이 필요한데 비해 PLS는 LISREL에 비해 비교적 약한 이론적 배경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설문 개발이나 분석에는 LISREL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PLS는 LISREL에 비해 더 적은 수의 표본수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LISREL의 경우, 200개 이상 또는 파라미터 수의 10배 정도의 표본 수를 필요로 하지만 PLS는 각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가장 많은 수의 관측변수보다 10배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Howel and Higgins, 199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견고성, 표본의 수, 설문의 자체 개발이라는 연구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PLS를 채택하였다. 모형 적합도 보다는 구성개념의 설명력을 측정하고자 한 최근의 정보기술 관련 연구와 마케팅 연구에서도 PLS를 분석도구로 채택하고 있다.

가설 검증 이전에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먼저 체크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항목 신뢰성(Individual Item Reli-

ability),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그리고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동일 변수내의 다른 측정항목과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반영항목(Reflective Indicators)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Wixom and Watson, 2001].

그리고 구조모형결과에서의 이론적 근거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연계한 자기결정성의 중요한 요인을 통해 성취목표 지향성 및 학업성취 그리고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임효진, 이지은, 2014; 조현철, 2011; 소연희, 2007]. 그리고 부모의 양육에 대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중요한 자율성을 학업적 실패 내성을 통해 자기결정성 학업동기로 연결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경영분야에서도 자기결정성 요인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권두순 외[2010]의 연구에서는 온라인게임 연구에서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요인을 경영정보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몰입, 만족 그리고 충성도와 연결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리더십을 자기결정성 요인 특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임파워먼트와 조직성과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백유성, 신영숙, 2007; 임준태, 김상호, 2007].

마지막으로 김애옥, 박성욱[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를 독립변수로 배치하고 성취목표지향성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류지현, 임지현[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동기가 인지전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중요한 3가지 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표 9> 구조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저자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임효진, 이지은[2014]	자기결정성 요인	성취목표지향성	영어성취, 지속의도
조현철[2011]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목표지향, 자가지각, 지능관, 자기조절전략	.	학업성취
소연희[2007]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학업성취	.	주관적 안녕감
권두순 외[2010]	자기결정성 요인	몰입, 만족	충성도
백유성, 신영숙[2007]	이슈리더십의 자기결정성 요인	.	임과워먼트, 조직성과
임준태, 김상호[2008]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에서의 자기결정성 요인	.	임과워먼트
서지혜, 이종숙[2014]	자율성지지, 관여, 구조 양육행동	학업적 실패내성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김애옥, 박성옥[2013]	자기결정성 동기	성취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류지현, 임지현[2008]	자기결정성 동기	인지전략	학업성취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배치하고, 기존 소상공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학습지향성, 혁신역량을 매개변수로,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디자인하였다.

5.2.1 신뢰성 분석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을 위해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값과 유사한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Composite Scale Reliability Index, CSRI) 값을 산출하였다. CSRI 값이 0.7 이상이면 변수의 측정이 구성개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변수의 종합요인 신뢰성 지수 값이 0.7 이상으로, 본 연구의 측정항목들은 내적 일관성 신뢰

<표 10> 최종 연구 변수의 CSRI(종합요인 신뢰성 지수)를 통한 내적 일관성 검증

최종 연구 변수	CSRI	Cronbach's Alpha
지각된 자율성(PA)	0.894	0.858
지각된 유능성(PC)	0.905	0.874
지각된 관계성(PR)	0.930	0.909
학습지향성(LO)	0.921	0.900
혁신역량(IA)	0.936	0.920
창업의지(ED)	0.929	0.905

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각 변수들의 측정항목에 대한 개념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각 측정항목과 관련 변수와의 요인 적재값과 분산팽창요인(VIF), 평균분산추출(AVE) 값을 구하여 <표 11>과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각 측정항목의 해당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값이 자율성의 PA1항목(0.670), 학습지향성의 LO1항목(0.696), LO2항목(0.684)이 0.7에 근사하며, 나머지가 0.7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표 12>에서 보듯이 평균분산추출(AVE)이 모두 0.5 이상으로 분석되어 구성개념 간에 수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선성(collinearity)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차(tolerance)를 계산해야 한다. 공선성과 연관된 척도로는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있으며, 이는 공차의 역수이다(즉, VIF = 1/TOL). PLS 사용 시 공차 값은 0.20 이하, VIF 값은 5 이상인 경우 잠재적인 공선성 문제를 지니게 된다. <표 12>에서 보듯 VIF 값은 모두 5 미만으로 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최종 연구 변수의 요인 적재값과 교차요인 적재값

	PA	PC	PR	LO	IA	EI
PA1	<b>0.670</b>	0.419	0.368	0.272	0.255	0.185
PA2	<b>0.787</b>	0.564	0.467	0.346	0.327	0.205
PA3	<b>0.777</b>	0.607	0.513	0.397	0.355	0.336
PA4	<b>0.751</b>	0.495	0.398	0.325	0.338	0.156
PA5	<b>0.791</b>	0.580	0.491	0.345	0.361	0.265
PA6	<b>0.809</b>	0.593	0.450	0.420	0.397	0.342
PC1	0.601	<b>0.788</b>	0.533	0.504	0.505	0.287
PC2	0.518	<b>0.775</b>	0.566	0.527	0.505	0.354
PC3	0.578	<b>0.803</b>	0.577	0.482	0.424	0.363
PC4	0.643	<b>0.839</b>	0.562	0.532	0.493	0.403
PC5	0.550	<b>0.762</b>	0.566	0.541	0.486	0.413
PC6	0.461	<b>0.728</b>	0.396	0.309	0.526	0.240
PR1	0.520	0.598	<b>0.821</b>	0.514	0.462	0.333
PR2	0.468	0.614	<b>0.818</b>	0.484	0.372	0.368
PR3	0.536	0.605	<b>0.863</b>	0.475	0.387	0.417
PR4	0.416	0.500	<b>0.824</b>	0.452	0.351	0.281
PR5	0.519	0.591	<b>0.861</b>	0.530	0.419	0.435
PR6	0.457	0.491	<b>0.790</b>	0.466	0.365	0.351
LO1	0.351	0.418	0.352	<b>0.696</b>	0.496	0.296
LO2	0.329	0.371	0.375	<b>0.684</b>	0.396	0.297
LO3	0.393	0.551	0.496	<b>0.814</b>	0.597	0.394
LO4	0.340	0.522	0.431	<b>0.788</b>	0.554	0.357
LO5	0.367	0.538	0.588	<b>0.853</b>	0.601	0.469
LO6	0.395	0.549	0.530	<b>0.870</b>	0.591	0.441
LO7	0.399	0.474	0.450	<b>0.822</b>	0.540	0.508
IA1	0.437	0.531	0.411	0.584	<b>0.795</b>	0.383
IA2	0.394	0.512	0.404	0.557	<b>0.829</b>	0.307
IA3	0.365	0.538	0.380	0.581	<b>0.838</b>	0.400
IA4	0.343	0.496	0.425	0.562	<b>0.827</b>	0.422
IA5	0.365	0.534	0.397	0.583	<b>0.863</b>	0.433
IA6	0.312	0.491	0.321	0.571	<b>0.812</b>	0.353
IA7	0.358	0.490	0.399	0.507	<b>0.784</b>	0.421
EI1	0.328	0.416	0.395	0.455	0.395	<b>0.876</b>
EI2	0.320	0.424	0.453	0.439	0.432	<b>0.888</b>
EI3	0.324	0.396	0.390	0.483	0.462	<b>0.870</b>
EI4	0.190	0.312	0.280	0.379	0.328	<b>0.798</b>
EI5	0.231	0.318	0.340	0.382	0.387	<b>0.821</b>

주) PA : 지각된자율성, PC : 지각된유능성, PR : 지각된관계성, LO : 학습지향성, IA : 혁신역량, EI : 창업의지.

〈표 12〉 최종 연구 변수의 요인 적재값과 분산팽창요인, 수렴 타당성

항목	측정문항	요인 적재값	VIF	AVE
PA1	내 삶이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 받지 않는다고 느낀다.	0.670	1.552	0.586
PA2	평소에 나다움을 유지하는 편이다.	0.787	2.069	
PA3	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다고 느낀다.	0.777	1.891	
PA4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느낀다.	0.751	1.782	
PA5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0.791	1.929	
PA6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0.809	1.898	
PC1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0.788	1.893	0.613
PC2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0.775	1.810	
PC3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0.803	2.203	
PC4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0.839	2.538	
PC5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0.762	1.783	
PC6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0.728	1.697	
PR1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0.821	2.141	0.688
PR2	내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0.818	2.414	
PR3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0.863	3.056	
PR4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0.824	2.416	
PR5	내 주변 사람들과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0.861	2.679	
PR6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0.790	2.027	
LO1	나는 회사의 학습 능력을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0.696	1.938	0.628
LO2	나는 학습을 지출이 아닌 투자라고 생각한다.	0.684	1.993	
LO3	나는 직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잘 전달한다.	0.814	2.171	
LO4	나는 업무 중 일어난 실수를 새로운 학습기회로 활용할 것을 장려한다.	0.788	2.075	
LO5	나는 직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업무환경 또는 업무절차 등에 활용한다.	0.853	2.847	
LO6	나는 직원이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기술을 업무에 적용해 보도록 장려한다.	0.870	3.199	
LO7	나와 직원은 업무방식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0.822	2.568	
IA1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795	2.256	0.675
IA2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자원배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29	2.613	
IA3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38	2.926	
IA4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27	2.742	
IA5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전략계획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63	3.212	
IA6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812	2.358	
IA7	내가 창업하려는 회사는 경쟁사보다 비교적 우수한 조직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0.784	2.262	
EI1	내가 관심 갖고 지속가능한 분야를 창업할 것이다.	0.876	2.958	0.725
EI2	장래에 나 자신의 기업을 설립 운영할 것이다.	0.888	3.166	
EI3	나만이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0.870	2.591	
EI4	비전 있는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창업할 수 있다.	0.798	2.088	
EI5	지시를 받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창업하고 싶다.	0.821	2.208	

주) PA : 지각된 자율성, PC : 지각된 유능성, PR : 지각된 관계성, LO : 학습지향성, IA : 혁신역량, EI : 창업의지.

판별 타당성 측정을 위해 Fornell and Larcker [1981]가 제안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을 사용하였다. <표 13>에서 별표(\*)로 표시한 값은 AVE 제곱근 값이며 나머지 행렬에서의 값은 각 변수의 상관계수 값을 나타낸다. AVE 제곱근 값이 0.7 이상이고, AVE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커야 판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결과, 잠재변수 간의 상관관계 중 가장 큰 값 0.716(자율성-유능감 간의 상관계수)이 AVE의 제곱근 값 중 가장 작은 값 0.765(자율성의 AVE 제곱근 값)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항목은 개념적으로 타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2.2 연구모형의 적합도

PLS 모형의 적합도는 내생변수의 R<sup>2</sup>와 Redundancy 값, GoF 값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김중인, 201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14>와 같다. R<sup>2</sup> 값은 0.26 이상이면 높은 설명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모든 내생변수의 R<sup>2</sup> 값이 0.26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dundancy 값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분산을 설명하는 평균 능력으로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모형의 내생변수의 Redundancy 값이 모두 0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어 예측 적합도가 있는 것으로 분

<표 13> 상관관계 및 AVE(평균분산추출) 값을 통한 판별 타당성 검증

	PA	PC	PR	LO	IA	EI
PA	<b>0.765*</b>					
PC	0.716	<b>0.783*</b>				
PR	0.588	0.685	<b>0.830*</b>			
LO	0.464	0.623	0.588	<b>0.792*</b>		
IA	0.448	0.625	0.476	0.687	<b>0.822*</b>	
EI	0.332	0.442	0.441	0.505	0.474	<b>0.851*</b>

주) \*AVE 제곱근 값(Square Root of the AVE).

PA : 지각된 자율성, PC : 지각된 유능성, PR : 지각된 관계성, LO : 학습지향성, IA : 혁신역량, EI : 창업의지.

<표 14>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Redundancy	R <sup>2</sup>	Communality	GoF
자율성			0.413	0.462
유능성			0.447	
관계성			0.552	
학습지향성	0.263	0.437	0.498	
혁신역량	0.356	0.537	0.557	
창업의지	0.202	0.286	0.580	
판단기준	0보다 크면 예측적합도가 있다고 판단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0.13)로 판단		상(0.36 이상), 중(0.25~0.36), 하(0.10~0.25)로 판단
	회귀분석 및 상관분석과 통계적 근거 동일	회귀분석과 통계적 근거 동일		회귀분석 및 요인분석과 통계적 근거 동일

석되었다. 또한 GoF 방식이 PLS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PLS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내생변수 R<sup>2</sup>값들의 평균값과 Communality 평균값을 곱한 값의 제곱근 값을 도출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 값이 0.36 이상이면 높은 수준의 적합도, 0.25~0.36 미만이면 중간수준의 적합도, 0.10~0.25 미만이면 낮은 적합도라고 판단한다. 본 연구모형의 내생변수 R<sup>2</sup>값들의 평균은 0.420이며, Communality 평균값은 0.508이다. 두 값의 곱은 0.213이며, 0.213의 제곱근 값은 0.462이므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높은 수준의 적합도로 판단할 수 있다.

### 5.2.3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의 영향도

Chin[1998b]은 연구모형의 구성개념의 예측력을 측정하려면 선행 구성개념의 영향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매개변수인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의 영향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연구모형에 매개변수가 포함되어야 좋은 연구모형인지 아니면 매개변수가 없는 것이 더 좋은 연구모형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Chin[1998b]은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모형을 완전모형, 매개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모형을 감소모형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구성개념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f^2 = (R^2_{\text{included}} - R^2_{\text{excluded}}) / (1 - R^2_{\text{included}})$$

$R^2_{\text{included}}$  : 완전모형,  $R^2_{\text{excluded}}$  : 감소모형

계산된 영향도  $f^2$ 의 기준은 0.02이면 작은 효과, 0.15면 중간 효과, 0.35면 큰 효과의 정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서도 매개변수의 포함여부에 따라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완전모형과 감소모형으로 구성하여 영향도를 분석

한 결과, 완전모형에서의 R<sup>2</sup>값이 0.286, 감소모형에서의 R<sup>2</sup>값이 0.240로 나타났으며, 영향도  $f^2$ 는 0.064로 분석되어 작은 효과(기준 0.02)를 나타내어 본 연구모형에서 매개변수의 포함이 좋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5.2.4 동일방법편의

본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연구 변수들은 응답자의 자기보고법(Self-Report)을 통해 획득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인해 변수들의 연관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는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가 발생한다[김정은, 양희동, 2015]. 이를 통해 측정방식에 야기되는 연구변수들의 연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구체적으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은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직각회전을 하기 전에 하나의 지배요인(One Dominant Factor)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이다[Podsakoff and Orga, 1986]. 둘째, Liang et al.[2007]의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임의의 변수(method)와 연구 모형에서의 변수들이 설명하는 분산 값을 분리하여 동일방법편의를 분석 및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and Organ[1986]의 연구에서 제안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Factor Test)을 하는 것으로 SPSS statistics 18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50% 이하이면 동일방법편의가 없다고 판단한다. <표 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측정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추출제곱합 적재값은 40.546이며, 50% 이하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동일방법편의가 없다고 판단된다.

〈표 15〉 단일요인검증(Harman's Single Factor Test)을 통한 동일방법편의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제곱합 적재값		
	합계	% 분산	% 누적	합계	% 분산	% 누적
1	15.002	40.546	40.546	15.002	40.546	40.546
2	3.085	8.338	48.884			
3	2.432	6.572	55.456			
4	1.739	4.846	60.302			
5	1.432	3.871	64.172			
6	1.040	2.811	66.983			
7	.902	2.437	69.420			
8	.771	2.084	71.504			
9	.723	1.954	73.458			
10	.707	1.911	75.369			
11	.656	1.773	77.143			
12	.580	1.566	78.709			
13	.572	1.546	80.255			
14	.538	1.454	81.709			
15	.514	1.390	83.099			
16	.482	1.303	84.402			
17	.466	1.259	85.661			
18	.423	1.142	86.804			
19	.409	1.106	87.910			
20	.383	1.036	88.946			
21	.364	.983	89.928			
22	.355	.959	90.888			
23	.320	.865	91.753			
24	.313	.845	92.598			
25	.303	.820	93.418			
26	.276	.746	94.164			
27	.267	.722	94.886			
28	.253	.683	95.569			
29	.234	.632	96.201			
30	.216	.584	96.785			
31	.215	.581	97.366			
32	.200	.540	97.906			
33	.179	.483	98.389			
34	.166	.449	98.838			
35	.154	.415	99.253			
36	.146	.394	99.647			
37	.130	.353	100.000			

주) 추출방법 : 주성분분석.



### 5.2.5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분석

이상의 측정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 측정모형 하에서 각 변수간의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채택 여부는 <표 16> 및 <그림 2>와 같다.

먼저, 자기결정성 요인과 관련된 가설 결과를 살펴보면,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업무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사업을 하려는 분야에 내재된 상태로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지각된 관계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지각된 유능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를 통해 지각된 유능성

은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유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업과 직무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과 높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 간의 관계성이 밀접하고 향상될수록 스스로 내재적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각된 관계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들은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을 하는 수단으로 만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 유지로 인해 혁신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지향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학습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혁신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이를 통해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인과관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교육, 경영개선, 멘토링,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지원제도와 정책이 창업지원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는 증거로 풀이된다.

<표 16> 경로분석 결과와 가설채택 여부(단측검정)

가설	인과관계	경로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검증
가설 1	지각된 자율성 → 학습지향성	-0.025	0.075	0.334	0.738	기각
가설 2	지각된 유능성 → 학습지향성	0.429	0.082	5.239	0.000***	채택
가설 3	지각된 관계성 → 학습지향성	0.309	0.091	3.394	0.001**	채택
가설 4	지각된 자율성 → 혁신역량	-0.006	0.075	0.076	0.940	기각
가설 5	지각된 유능성 → 혁신역량	0.359	0.100	3.603	0.000***	채택
가설 6	지각된 관계성 → 혁신역량	-0.062	0.090	0.688	0.492	기각
가설 7	학습지향성 → 혁신역량	0.503	0.098	5.104	0.000***	채택
가설 8	학습지향성 → 창업의지	0.340	0.114	2.994	0.003**	채택
가설 9	혁신역량 → 창업의지	0.241	0.095	2.531	0.012*	채택

\* $p < .05$ , \*\* $p < .01$ , \*\*\* $p < .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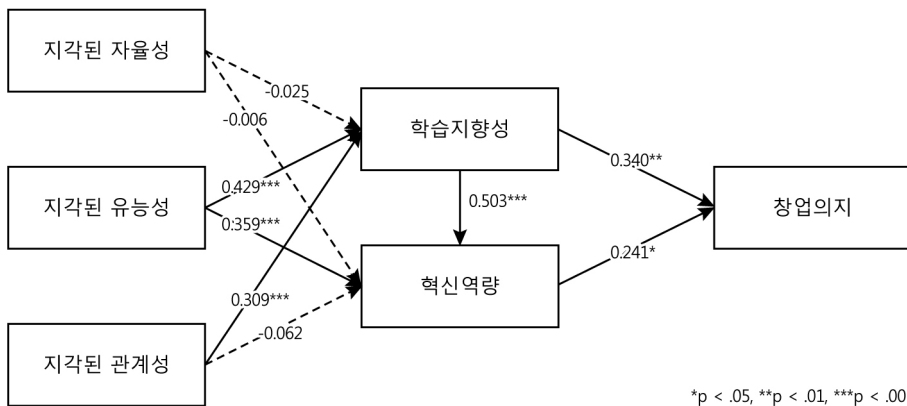
### 6. 결론 및 시사점

인간 본연의 심리욕구를 다룬 대표적인 이론인 자기결정성 이론이 학습지향성,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간의 내재적 동기인 자기결정성 이론의 지각된 자율성,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관계성이 학습지향성, 혁신역량을 통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용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자율성은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유진, 장형심[2014]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및 유능성 욕구 만족이 학습관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는데 자율성욕구는 학습관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희망적 사고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율성이 충족됨에 따라 출현된 희망적 사고의 간접적인 역할을 통해 학습관여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창업 등의 교육현장에서는 자

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교육에 임하거나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여 스스로 긍정적인 자성 예언을 자신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 학습자의 희망적 사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각된 유능성은 학습지향성과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상규[2011]의 연구에서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서번트 리더십과 혁신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유능성)의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자기효능감(유능성)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유능성이 높은 조직구성원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신감에 넘쳐 일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유능성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유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개인적인 성장욕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격려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늘 배우고 도전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할 것이며,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p < .05, \*\*p < .01,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셋째, 지각된 관계성은 학습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희, 김유리[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성(교사-학생관계)은 자기주도학습, 자아개념과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사-학생관계는 자기주도학습 또는 자아개념을 거쳐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관계성(교사-학생관계 및 또래관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각된 관계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운형[2014]의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대인관계 공정성이 혁신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비전 인식이 조절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비전이 명료하며 이를 조직구성원들이 잘 공유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혁신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의사소통,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상대나 조직에 대한 신뢰나 확신의 정도가 낮게 되면 혁신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에 비전에 대한 공유, 상호 존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비전 공유 워크숍, 세미나, 경영자의 조직비전 수시 강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습지향성은 혁신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금, 손승남[2014]의 연구에서는 일터학습(형식적, 무형식적, 우연적)은 혁신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혁신성은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터학습과 조직시민행동 간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이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학습을 경쟁우위

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교육 활동에 일터학습을 유형별로 적용하거나, 학습의 영역과 관련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인적자원개발의 틀을 마련하고 학습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습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태[2014]의 연구에서는 새가계운동 체험학습이 대학생의 창업의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기업가정신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체험학습이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주요한 교육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 창업교육에 있어서 이런 양방향 현장 체험학습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역량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2006]의 연구에서는 성취동기, 위험감수성, 혁신추구성 등 대부분의 기업가특성이 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혁신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경향으로 인해 창업단계에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따라서 체계화된 창업교육과 창업에 대한 지식, 자신감을 부여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까지 진행된 창업의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인간본연의 심리적 욕구동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생, 직장인, 교육기관에서 창업교육을 받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창업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적,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는 초기단계로 개인적 특성 또한 기업가정신의 하위변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 창업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을 고려할 때 개인의 기본심리욕구 특성과 지속적인 학습지향성, 혁신을 추구하는 혁신역량에 관한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에, 본 연구는 이들을 반영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모델은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예측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적 심리욕구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창업 시 소상공인 정책 수립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POOL을 구성하여 상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기반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계성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측면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속의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들과 연결하려는 기본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창업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자연스런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업, 멘토링, 코칭, 구인, 구직 등의 파트너십이 지역 사회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창업에서 폐업, 취업에 이르는 범부처를 아우르는 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기관마다 단절적인 사업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원 내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종합정보 제공을 통한 창업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조성하여 창업자가 환경에 대해 어떤 행위를 취할 것인가를 스

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준비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도록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창업전, 창업, 경영에 이르는 성장단계마다 상담, 맞춤형교육, 컨설팅, 멘토링, 자금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생존력을 높여야 한다. 물론 인큐베이팅 시스템이 기관에 있으나 한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원스톱 지원정책을 전개하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넷째, 기술이나 지식서비스 기반의 혁신형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생계형 창업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등 민간영역 부문에서 적시성 있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멘토링화하여 사업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연계한 민간 파트너십 구축 및 디테일한 운영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혁신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에 비해 2배의 생존율과 3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는 창업 환경을 제공하여 창업자가 자기결정적인 형태로 변화되도록 촉진시키는 정책 전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 표본의 일반화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 표본 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대표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표본을 한정하였기 때문에 단일 표본과 좀 더 많은 샘플 수를 확보하여 연구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자기결정적 심리욕구동기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학습 및 혁신과 관련된 연구 등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구축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개

인의 자기결정성 심리욕구동기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있어서 산업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환경적 특성, 의사결정과정 등과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한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설문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편의표본 추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디자인을 할 때 보증자금을 상담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한 사람들이 여러 업종분야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디자인을 했으므로 편의추출이라는 방법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대상과 다양한 계층에 걸친 표본을 확보하여 자기결정성 심리욕구동기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주요 변수의 충분한 분산을 확보하고 다른 과업 환경을 반영하여 창업의지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자를 상대로 무작위표본추출을 실시하여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 연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강영순, 김정훈, “코칭리더십, 기본심리욕구, 혁신행동, 조직시민행동의 구조적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7호, 2013, pp. 1909-1928.
- [2] 고도일, “자율성, 성과-보상 연계성, 경쟁성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6권 제5호, 2011, pp. 379-398.
- [3] 고수일, 한주희, “직무몰입과 직무동기의 다차원계 : 자기결정감에 의한 접근”,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2009, pp. 1017-1038.
- [4] 고재성, 이건남, 김성남, 변정현, “청년층 구직역량 개념 정의 및 가중치 분석”,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010, pp. 17-42.
- [5] 국세청, *2014 국세통계연보*, 2014.
- [6] 권두순, 이상철, 서영호, “자기결정성 요인이 온라인 게임 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 제27권 제3호, 2010, pp. 71-86.
- [7]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방안*, 2012.
- [8] 김강호, “기술적 환경불확실성에 따른 개인과 조직 학습지향성 부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4호, 2008, pp. 251-269.
- [9] 김귀원, “학습, 혁신역량과 혁신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7권 제2호, 2014, pp. 380-420.
- [10] 김동수, 서광열, “호텔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고객지향성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조절효과”, *관광학연구*, 제35권 제2호, 2011, pp. 315-336.
- [11] 김명숙, 김정인, “협동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의 공동체의식, 성취목표지향성 및 공유된 목표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제6권 제1호, 2008, pp. 1-26.
- [12] 김미숙, 김영국,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연구*, 제15권 제4호, 2012, pp. 61-84.
- [13] 김애옥, 박성옥,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결정성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연과학*, 제24권, 2013, pp. 187-219.
- [14] 김영중, 권영국, 윤혜현, “대학생의 기업가정

- 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연구*, 제17권 2호, 2014, pp. 7-26.
- [15] 김은영, “자기결정성동기이론의 세 가지 욕구가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9권 제2호, 2012, pp. 311-330.
- [16] 김은주, 도승이, “협동학습에서 학습자의 유능감 및 관계성 욕구와 내재동기 및 수업참여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제23권 제1호, 2009, pp. 181-196.
- [17] 김정은, 양희동, “클라우드 서비스 위험이 실물업선 채택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제17권 제1호, 2015, pp. 117-140.
- [18] 김정환, “지각된 교수능력, 자기효능감, 실제지능, 성취목표, 지향성 및 학습전략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제24권 제4호, 2011, pp. 71-95.
- [19] 김종우, 이지우, “조직공정성, 과업특성, 혁신행동 및 혁신성과 간의 관계”, *경영경제*, 제45집 제1호, 2012, pp. 117-140.
- [20] 김주환, 이윤미, 김민규, 김은주, “온라인 게임중독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자기결정성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5호, 2006, pp. 79-107.
- [21] 김중인, “반영지표 vs 조형지표: 이론적 논의, 실증적 비교 그리고 실무적 유용성”, *마케팅연구*, 제27권 제4호, 2012, pp. 199-226.
- [22] 김해룡, 김쌍연, “직무자율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35집 제4권, 2011, pp. 199-229.
- [23] 나옥규, 임춘성, 유은정, “개인 정보화 역량과 기업 경영혁신 준비도(Process Innovation Readiness)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5, pp. 503-506.
- [24] 남중구, “학습지향성과 프랜차이즈 관계적 특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25] 노화봉, 정남기,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제15집 제1호, 2012, pp. 1-20.
- [26] 류지현, 임지현, “초등학생의 자기결정성 동기요인이 인지전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검증”, *교과교육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8, pp. 219-238.
- [27] 민향옥, 김동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상 인식, 네트워크 환경 및 개인의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제8권 제4호, 2013, pp. 1-16.
- [28] 박시사, 강성일,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제31권 제2호, 2007, pp. 187-204.
- [29] 박재환, 안승권, 윤인철, “가정환경, 경력지향성 및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2011, pp. 2499-2520.
- [30] 박지유, “창업가 특성과 사회적 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 멘토링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31] 박지호, “HRM 시스템과 성과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혁신의 매개효과 및 전략의 조절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32] 박천오, 김상묵, “정부산하단체 임원의 공통 직무수행역량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4, pp. 1-25.
- [33] 박해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무형자산 관리”, *회계정보리뷰*, 제13호, 2008, pp. 15-35.

- [34] 반성식, 배근우, 장성희, “개인발명가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창업동기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6호, 2013, pp. 2655-2677.
- [35] 백유성, 신영숙, “이슈 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조직 성과와의 관계”,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2007, pp. 1-25.
- [36] 법제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3.
- [37] 빈봉식, 박정기, “소상공인 창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4권 제3호, 2002, pp. 135-158.
- [38] 서리빈,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기업가정신이 기술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승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9] 서문식, “의료서비스 고객의 관계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고객관점의 자기결정성을 중심으로”, *경영과 정보연구*, 제33권 제3호, 2014, pp. 35-57.
- [40] 서지혜, 이종숙, “아동이 지각한 모의 양육태도와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의 관계 :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제11권 제2호, 2014, pp. 429-457.
- [4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폐업 실태조사*”, 2014.
- [42] 소연희,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성취 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제21권 제4호, 2007, pp. 1007-1028.
- [43] 안도희, 김유리,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 관계성,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 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52권 제1호, 2014, pp. 1-25.
- [44] 안유진, 장형심, “중학생의 자율성 및 유능성 욕구 만족, 희망적 사고, 학습참여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 희망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제28권 제2호, 2014, pp. 77-106.
- [45] 양윤직, 유종숙, “자기결정성이 SNS의 인게이지먼트와 구전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6권 제4호, 2014, pp. 44-76.
- [46] 여은아, “인적자원의 혁신성, 학습지향성, 이들의 상호작용이 혁신효과 및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1권 제2호, 2009, pp. 19-35.
- [47] 오영미, 박성환,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제14권 제2호, 2014, pp. 199-221.
- [48] 오창수, “자기관이 창업효능감, 학습지향성, 창업교육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49] 우대일, 이상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경영연구*, 제2권 제2호, 2011, pp. 95-110.
- [50] 유봉호, “중소기업의 학습지향성 : 선행요인과 결과”,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제14권 제3호, 2011, pp. 121-143.
- [51] 유봉호, “청년창업자의 심리특성과 내재적 동기가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6권 제10호, 2013, pp. 2669-2690.
- [52] 유봉호,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3호, 2014, pp. 1382-1389.
- [53] 유정석, “국제태권도조직의 혁신을 위한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2, pp. 105-118.

- [54] 윤남수,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기업가 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2012, pp. 1537-1557.
- [55] 윤방섭,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2004, pp. 89-110.
- [56] 이곡지, 추교완, “관계지향성이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9, pp. 248-270.
- [57] 이남주, 오계영, 이충섭, “소상공인의 자원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영전략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회계정보연구*, 제31권 제2호, 2013, pp. 141-162.
- [58] 이덕훈, 권세혁, 이영석,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전통재래시장연구*, 제6권, 2013, pp. 20-39.
- [59] 이명희, 김아영,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사회 및 성격*, 제22권 제4호, 2008, pp. 157-174.
- [60] 이성진, “기업가특성이 벤처창업의지와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2006, pp. 281-290.
- [61] 이완기, 이소윤, 한상진, 정 환, “여행업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내부환경요인과 직업가치, 직무만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8권 제3호, 2013, pp. 59-81
- [62] 이유태, “기업가정신/벤처/창업/정책/스페셜 이슈 : 대학생 현장체험학습(새가계운동)이 창업의도와 소상공인 경영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36권 제1호, 2014, pp. 135-157.
- [63] 이유태, “소상공인 3.0 : 생산적 · 능동적 서민 복지”, *한국벤처창업학회 2012 춘계학술대회*, 2012, pp. 61-79.
- [64] 이일한, 황금주, 김현철, 조세근, “기술창업기업 CEO의 혁신지향성이 전략지향성과 학습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7권 제2호, 2012, pp. 283-307.
- [65] 이정금, 손승남, “일터학습이 혁신성과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사회*, 제10권 제2호, 2014, pp. 181-208.
- [66] 이정원, 정병국, 안주영, “가족체제 유형에 따른 자기결정성 분석”, *간행물교육종합연구*, 제8권 제3호, 2010, pp. 289-303.
- [67] 이재훈, 이도형, 박대경, “혁신성과 학습지향성의 선행변수 및 성과변수와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제28권 제2호, 2006, pp. 75-108.
- [68] 이지우,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학회지*, 제22권 제1호, 2000, pp. 121-146.
- [69] 이지우, 김종우, 김일천,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조직지원이 종합병원 직원들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제13권 제1호, 2003, pp. 46-68.
- [70] 이홍재, 차용진, “조직문화가 지식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1권 제1호, 2007, pp. 105-128.
- [71] 임준태, 김상호, “변혁적 리더십이 경찰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3호, 2008, pp. 951-976.
- [72] 임채윤,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의 개념과 추진방향”, *과학기술정책*, 통권 181호, 2010, pp. 137-140.
- [73] 임효진, 이지은, “대학생들의 자기결정성, 성취목표지향성, 영어성취의 구조적 관계”, *교육논총*, 제34권 제2호, 2014, pp. 91-114.
- [74] 장지호, 이병현, 김도형, “중소기업의 혁신활



- 동조사 및 평가지표에 관한 고찰”,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0권 제2호, 2006, pp. 241-267.
- [75] 정대용, 박권홍,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학습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시장지향성과 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제24권 제2호, 2010, pp. 153-176.
- [76] 정선양, “전략적 기술경영”, 제2판, 서울 : 박영사, 2008.
- [77] 조윤희, “상호작용공정성,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 조직비전 인식과의 관계”,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4호, 2014, pp. 131-152.
- [78] 조윤희, 김태진, 조영호, “직무특성과 정서노동이 직무몰입과 혁신성향에 미치는 영향”,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제35집 제3권, 2011, pp. 1-37.
- [79] 조진현, 임미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영문학21*, 제27권 제3호, 2014, pp. 307-329.
- [80] 조현철, “내외적 학습동기, 자기결정성, 목표지향, 자기지각, 지능관 및 자기조절학습전략요인들의 학습태도,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25권 제1호, 2011, pp. 33-60.
- [81] 중소기업청,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 2013.
- [82] 지정훈, 김혜정, “소상공인 미용실의 애로사항 및 교육욕구 분석을 통한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6권 제3호, 2010, pp. 578-592.
- [83] 채갑석, 이원준, “소상공인의 마케팅 애로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경영연구*, 제36권 제1호, 2013, pp. 6-23.
- [84] 최명길, 박은주, “청년층의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문화·관광 창업 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4권 제5호, 2012, pp. 201-220.
- [85] 최석봉, “조직문화유형, 학습지향성 및 조직구성원의 혁신성 간의 관계 :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6호, 2011, pp. 3631-3653.
- [86] 최세철, 권용주, “소상공인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학습자 만족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학회지*, 제20권 제4호, 2014, pp. 86-99.
- [87] 통계청, *2013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 2014.
- [88] 한국고용정보원, *자영업의 고용구조와 인력 수요 전망*, 2013.
- [89] 황상규, “서번트 리더십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HRD연구*, 제6권 제1호, 2011, pp. 27-44.
- [90] 황성택, “자기결정적 혁신행동에 의한 기업의 동형화 현상 이해”, *승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91] Ajzen, I. and M. Fishbein., “Understanding Attitude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 NJ* : Prentice-Hall, 1980.
- [92] Ajzen, I., *Equity in Attitude Formation and Change In* : J.Greenberg and R. I., Cohen, Editors, *Equity and Justice in Social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1982, pp. 161-186.
- [93] Amabile, T. M., “Creativity in context: Update to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Boulder, CO* : West view, Vol. 52, 1996, pp. 141-166.
- [94] Baker, W. E. and Sinkula, J. M., “The synergistic effect of market orientation and learning orientation on organizational per-

- formanc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7, No. 4, 1999, pp. 411-427.
- [95] Basu, A. and Virick, M., “Assess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st Students : A Comparative Study”, *Paper presented at 12th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llegiate Inventors and Innovators Alliance*, Dallas, USA, 2008.
- [96] Bird, B.,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 The Case for Inten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1988, pp. 442-454.
- [97] Bontis, N., Crossan, M. M., and Hulland, J., “Managing an organizational learning system by aligning stocks and flow”,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Vol. 39, No. 4, 2002, pp. 437-469.
- [98] Boyatzis, A. R., *The competent manager :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 J Wiley, 1982.
- [99] Burns, T. and Stalker, G. M.,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London : Tavistock Publishing, 1961.
- [100] Calantone, R. J., Cavusgil, S. T., and Zhao, Y., “Learning orientation, Firm innov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Vol. 31, 2002, pp. 515-524.
- [101] Carland, J. W., Hoy, F., Boulton, W. R., and Carland, J. A., “Differentiating Entrepreneurs from Small Business Owners : A Conceptu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9, 1984, pp. 354-359.
- [102] Chin, W. W., “Issues and opin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IS Quarterly*, Vol. 22, No. 1, 1998a, pp. 7-16.
- [103] Chin, W. W.,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Marcoulides, G(ed),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98b, pp. 295-336.
- [104] Coleman, S. and Keep, E. J., “Background literature review for PIU project on workforce development”, London : Cabinet Office, 2001.
- [105]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4, No. 3, 1996, pp. 42-49.
- [106] Day, G. S., “The capabilities of market-driven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Marketing*, Vol. 58, No. 4, 1994, pp. 37-52.
- [107] Deci, E. L. and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 Plenum Press, 1985.
- [108] Dickson, P. R., “The Static and Dynamic Mechanics Competition : A Comment on Hunt and Morgan’s Comparative Advantage Theory”, *Journal of Marketing*, Vol. 60, 1996, pp. 102-106.
- [109] Dodgson, M., “Organizational learning, A review of some literatures”, *Organization Studies*, Vol. 14, 1993, pp. 375-394.
- [110] Farr, J. L., Hofmann, D. A., and Ringenbach, K. L., “Goal orientation and action control theory : Implications for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C. L. Cooper and I. T. Robertson(Eds.). *International review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 psychology*, New York, NY : Wiley, 1993.
- [111] Fornell, C. and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1981, pp. 39-50.
- [112] Gartner, W. B., Mitchell, T. R. and Vesper, K. H., "Action as If : Differentiating Entrepreneurial from Organizational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6, 1992, pp. 13-31.
- [113] Gibbons, L., "Team strategies for success : Doing what counts in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Vol. 16, No. 4/5, 2002, p. 257.
- [114] Howel, J. M. and Higgins, C. A., "Champ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35, No. 2, 1990, pp. 317-341.
- [115] Katz, J. A. and Gartner, W. B., "Properties of Emerging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3, 1988, pp. 429-441.
- [116] Kelliher, F. and Henderson, J. B., "A learning framework for the small business environment",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 30, No. 7, 2006, pp. 512-528.
- [117] Kolvereid, L. and Moen, O., "Entrepreneurship among business graduates : does a major in entrepreneurship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Vol. 21, No. 4, 1997, pp. 154-166.
- [118] Krueger, N. F., Reilly, M. D., and Carsrud, A. L.,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No. 5, 2000, pp. 411-432.
- [119] Lawson, B. and Samson, D., "Developing Innovation Capability in Organizations : A Dynamic Capabilities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Management*, Vol. 5, No. 3, 2001, pp. 377-400.
- [120] Liang, H., Saraf, N., Hu, Q., and Xue, Y., "Assimilation of Enterprise Systems : The effect of Institutional pressure mediating role of Top management", *MIS Quarterly*, Vol. 31, No. 1, 2007, pp. 59-87.
- [121] Paparoidamis, N. G., "Learning orientation and leadership quality : Their impact on salespersons' performance", *Management Decision*, Vol. 43, No. 7/8, 2005, pp. 1054-1063.
- [122] Podsakoff and Organ,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Vol. 12, 1986, pp. 69-82.
- [123] Ryan, R. and E.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Vol. 52, 2000, pp. 141-166.
- [124] Scott, S. G. and Bruce, R. A., "Determinants of innovative behavior : A path model of individual innovation in the workpla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7, No. 3, 1994, pp. 80-607.
- [125] Senge, P. M., *The Fifth Discipline, The Art and Practice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New York, Double day, 1990.
- [126] Shapero, A., "The Displaced, Uncomfortable Entrepreneur", *Psychology Today*,

- Vol. 9, No. 6, 1975, pp. 83–88.
- [127] Sinkula, J. M., Baker, W., and Noordewier, T. G., “A framework for Market-Based Organizational learning Linking Values, Knowledge and Behavior”,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25, 1997, pp. 305–318.
- [128] Slater, S. F. and Naver, J. C., “Market Orientation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Journal of Marketing*, Vol. 59, 1995, pp. 63–74.
- [129] Standage, M., Duda, J. L., and Ntoumanis, N., “A model of contextual motivation in physical education : Using constructs from self-determination and achievement goal theories to predict physical activity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5, No. 1, 2003, pp. 97–110.
- [130] Sujan, H., Weitz, B. A., and Kumar, N., “Learning orientation, working smart, and effective selling”, *Journal of Marketing*, Vol. 58, No. 3, 1994, pp. 39–52.
- [131] Van de ven, “Central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Innovation”, *Management Science*, Vol. 32, No. 5, 1986, pp. 590–607.
- [132] Veciana, J. M., Aponte, M., and Urbano, 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 1, 2005, pp. 165–182.
- [133] Wixom, B. and Watson, H.,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factors affecting data warehousing success”, *MIS Quarterly*, Vol. 25, No. 1, 2001, pp. 17–41.
- [134] Wong, S. S., “Investigating collective learning in teams : The context in which it occurs and the collective knowledge that emerges from i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uke University, 2002.

## ■ 저자소개



### 박 세 언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서 여가경영학과 석사,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ICT, 마케팅, 경영컨설팅, 창의성공학 등이다.



### 권 두 순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석사(MIS 전공),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기술 소비자 심리, 데이터 마이닝 등이다.



### 황 찬 규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 석사, 미국 코넬대학에서 토목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KIST 위촉연구원, 미국선급협회 ABS 구조 엔지니어로 재직하며 연구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행정처장,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유비쿼터스 및 IT기술, 유비쿼터스 도시 등이다.